



장군님을 맞는 날



강 훈

푸른 하늘이 더더욱 높아보이는 어느날이
였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놀고있던 용이는 어디서 들
려오는 군악소리에 귀가 번쩍 트이여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이 웬일입니까?

멀리 큰거리 저쪽을 바라보니 언제 어디서
밀려나온 사람떼인지 백사람, 천사람, 만사
람 헤일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행
길에 자욱히 널려있습니다.

널려있는것만 아니라 그 사람떼들은 운동
장쪽으로 자꾸만 밀려들어가고있습니다.

해방후 처음 보는 홀륭하고도 장엄한 행
사입니다.

《야, 이거 오늘이 무슨 날이야?》

용이는 눈이 등그래져서 그리로 곧장 달
려가고싶었지만 이런 좋은 구경을 저 혼자
만 할수가 없습니다.

동리 동무들에게 알리고싶은 생각이 났습
니다.

그러나 나팔소리, 북소리, 만세소리에 가
슴은 설레이고 발걸음이 앞서서 견딜수가 없
습니다. 어서 가보구만싶었습니다.

용이는 그만 저 혼자 거리로 달려갔습
니다.

그런데 달려가보니 행렬에 겹겹이 둘러선
사람때문에 좀체로 무슨 일인지 또 무엇때
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알아야겠는데 큰일입니다.

용이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나 어른들도 용이처럼 열중해져서 그
런 대답할 정신이 없는가봅니다. 그냥 만세
만 부르고있습니다.

얼마후 용이는 간신히 그 사람떼를 뚫고들
어가 맨 앞줄에 서서 볼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희망에 가득찬 힘찬 얼굴로 씩씩하
게 행진합니다.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로동자아저씨는 가던 길을 멈추고 친
한 사람처럼 용이의 두손목을 쥐고서서
《오, 너 아직 모르고있었니? 오늘이 말이
지, **김일성장군님**이 돌아오시는 날이란
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애국자이시고 홀륭하
신 **김일성장군님**을 너 아직 모르지? 그분이 말
이지, 조선에 돌아오셔서 오늘 처음으로 인
민들을 대하는 날이란 말야. 너두 어서 저
운동장으로 가서 장군님을 뵈워라, 응!》 이
렇게 친절하게 일러주고 용이의 머리까지 쓰
다듬어주고 지나갔습니다.

《네, **김일성장군님!**》

용이는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큰소리를 쳤
습니다. 용이는 용이대로 감격할수가 있는,
또 장군님을 기다릴수가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돌아오셨구나, 아!》

이렇게 다시한번 입속으로 웨쳤을 때 용
이의 머리속에는 8월 15일 그 얼마전 어느날
밤의 일이 머리속에 훤히 떠올랐습니다.

교실안에서 조선말을 여러번 썼다는 리유

로 학교에서 쫓겨난 용이는 그후 밤이면 어머니에게서 몰래 조선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뜻에서였습니다.

《용이, 너는 언제나 조선이 내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버지가 타향에 가서서 지금 나라를 위하여 혁명운동을 하시며 고생하시는것도 모두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란다.》

어머니는 밤마다 글을 가르쳐주고나서는 혹시 남이 알가봐 귀속말로 수군수군 이런 말을 속삭여주는것이였습니다.

나라를 찾기 위하여 집안을 팔기고 용이가 젖먹을 시절에 떠나셨다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언제나 그리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여느때와 다르게 힘이 생기고 엄숙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저도 이다음 자라서 아버지와 같은 애국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날 밤 발자욱소리도 없이 고양이처럼 살며시 나타난것은 꿈에 보아도 좋지 않은 동리 홍구장이였습니다.

《홍, 아이에게 좋은걸 가르치구있구려.》

깜짝 놀랜 어머니는 숨씨있게 책을 감추느라고 했지만 그만 들키고야말았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온지 얼마후 형사와 같이 와서 집안을 뒤지고 무슨 죄인처럼 어머니를 힐난하고 간 홍구장은 그후에도 가끔 찾아와서는 동정을 살피곤 하였습니다.

용이 아버지로부터 소식이 없느냐, 소식이 있는걸 알고왔는데 왜 감추느냐, 이런 소리로 용이 아버지로부터 무슨 련락이나 있을가 하고 어머니를 못살게 굴던 홍구장이였습니다.

이런 홍구장에게 들켰으니 어찌되겠습니까.

그 이튿날 용이 어머니는 또 경찰서에 불리워가서 여러시간 취조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용이 어머니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로와하시였습니다.

용이 몰래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용이는 잠이 울리가 없었습니다.

용이는 용이대로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드릴가 궁리를 짜내는것이였습니다.

첫닭이 울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로와하시는 어머니에게 용이는 위로하는 말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일본이 망하문 홍구장 같은건 우리보구 잘못했다구 빌겠지요?》

《빈다구 용서하겠니, 그만큼 벌을 받아야지.》

《얼마 있으면 일본이 망할가요? 도이췌란드가 망했으니깐 일본두 이어 망하겠지요?》

《그래그래, 이제 쉬이 망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처음으로 이날 밤 김일성장군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며 그후 김일성장군님은 아버님을 따라 만주땅으로 가시여 이날이때까지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 빨찌산부대를 거느리고 일본놈들과 싸우고계신다는 이야기를 옛말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용이의 나이가 들고 지혜가 점점 자라는것을 기뻐하면서 지금까지 혼자만 알고 간직해두었던 비밀을 용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던것입니다.

그리고 용이도 이다음 자라서 김장군님을



받드는 아버지처럼 애국자가 꼭 되어야 한다고 훈계하시었습니다.

×

그후 얼마 안되어 8월 15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림던 아버지도 이제 머지않아 조국땅에 돌아오신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어둡고 안타깝고 병어리처럼 말도 제대로 할수 없었던 용이네 집안에는 하루아침에 환한 광명이 비쳐왔습니다.

이와 함께 어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것은 **김일성**장군님이시었습니다.

나라를 찾기 위하여 여태까지 싸우신 장군님은 얼마나 훌륭한분이실가—용이는 늘 기다려지는것이었습니다.

이런 **김일성**장군님을 드디어 만나뵙게 된것이 아닙니까.

용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용이는 아까 그 로동자아저씨로부터 장군님을 만나뵙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웬일인지 한참동안 엄숙한 얼굴을 지으며 말뚝처럼 가만히 그 자리에 서있었습니다.

어린 가슴에도 감격이 끓어올랐고 또 지나간 슬픈 기억을 다시한번 더듬어보는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많은 사람떼의 틈새기를 주시고 빠져나와 집으로 달음박질치는것이었습니다.

이 기꺼운 소식을 어서바빠 어머니에게 알리고싶었기때문입니다.

공원에서는 그냥 환호소리가 산바람처럼 들려옵니다.

용이의 가슴은 북처럼 쿵쿵 울립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얼마후 용이는 집에 달려와서 숨찬 소리로 《어머니!》하고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불렀을 때 벌써 어머니는 새옷을 갈아입고계시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어머니는 벌써 김장군님이 개선하신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용이를 기다리고있는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가요. 김장군님 맞으러—》

용이가 어머니의 새옷 입은 품에 안기며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피여있었습니다.

주체37(1948)년